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6월 30일(주일) 제1252호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자.

온누리는 자연과 환경 아끼는 청지기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하고, 일회용품 줄이고, 분리수거 철저히

오늘(30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에게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다. 그 대신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이촌역, 양재 온누리교회에

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온누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른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온누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캠페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일회

용 컵 대신 텀블러 및 머그컵 사용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등이 있다.

온누리교회 환경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는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팀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제로(Zero Waste)'를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오늘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는 텀블러를 가져오는 성도들에게

쿠키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교회 카페에서는 온누리교회 로고가 새겨진 텀블러를 판매한다.

또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는 철저하고 원활한 분리수거를 위해서 그 린스테이션(분리수거장)을 설치 및 운영한다. 그 린스테이션 사용이 활발해진다면 그동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 버리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어려움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 필수적이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부부장)는 성도들에게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지기의 역할"이라면서 온누리교회 환경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팀에서 동역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학청년부, FA 17기 참가자 모집

서류마감 1차 7월 18일, 2차 7월 25일

대학청년부 단기훈련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1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1년 이상)으로 35세 이하(85년생)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추천서 3부(온누리 목회자, 공동체리더십,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다.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마감은 1차 7월 18일(목), 2차 7월 25일(목)이다. 면접은 1차 7월 27일(토), 2차 8월 2일(금) 실시할 예

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은 8월 3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합숙훈련은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다. 훈련을 모두 마치면 9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된다. 파송국가는 네팔, 인도네시아, 일본이다.

문의: 070-4464-8105, fa@tim.or.kr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여름 사역 간증 및 사진 공모전

온누리신문에서 '2019 여름사역 간증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동체, 사역팀,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 차세대 여름캠프 등지에서 받은 은혜를 글로 써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실어준다. 간증,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얼굴 사진을 보내면 된다. 원고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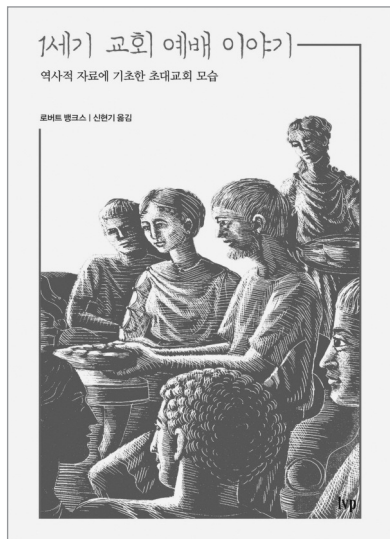
은혜와 감동을 풍성하고 생생하게 담은 글이 좋다. 사진도 단체사진보다는 역동적인 사역 장면이 담긴 사진이 좋다. 간증과 사진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94



책 읽어주는 목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로버트 뱅크스 저 | IVP | 6,000원

이 책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본 적 없는 ‘푸블리우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신식민지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 빌립보 출신이다. 오래된 친구 글레멘드와 유오디아와 함께 로마에 머물고 있

다.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 만찬에 초대 받아 가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이미지와 다르게 도덕적 제약과 종교적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 보인다.

손님대접 잘하기로 소문난 부부의 다정한 환영을 한 몸에 받는다. 처음 만찬에 참석한 푸블리우스의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정해놓은 것을 놀랍게 여긴다. 푸블리우스뿐만 아니라 아직 모임에 오지 않은 해방 노예인 가이오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모습은 로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만찬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식사 이후 ‘직접 빵과 잔을 먹고 남은 것을 그들의 신에게 드리며 받아 달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만찬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바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신이 한 일을 이야기 하고,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상기시킨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기억하고 먹고 마신다. “육체로는 함께 있지 않지만 그 분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며 기도한다. 일련의 과정은 전혀 종교적이거나 의식적

지 않다.

만찬을 마치고 어른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종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눈다. 누군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대화하듯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관계는 매우 수평적이다. 서로 관점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도 무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경험한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하면서 일치와 있고, 흐트러짐 속에서 질서가 있다.

푸블리우스는 그날 모임 마치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본다. 예상과 다르게 매우 즐거웠고, 사람들 자체가 인상적이었다.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무언가가 그 모임 가운데 있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푸블리우스가 초대를 받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상과 구별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경험한 것이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 이것이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다.

이 책의 목적은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첫째,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

다. 우리가 초대교회라 칭하는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이 시대 교회공동체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 생각해 보고, 교정할 수 있는 관점을 준다. 둘째, 교회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다. 이전의 공동체에서 깊은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염증을 느껴 버린 이들에게 다시 공동체를 소망하는 관점을 준다. 셋째,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교회공동체가 의식적, 신비적, 광신적이지 아니라 대체로 일상적임을 알려줄 수 있다. 따뜻하고 포근하며 늘 함께 하고 싶은 가족공동체임을 소개해 줌으로 새롭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 꿈을 꾸는 온누리교회의 소그룹 공동체마다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한다.



문장원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크리스천은 왜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하나요?”

답: “우리는 죄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영적 무지 상태일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하며,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터넷 기사나 방송을 통해 교회 임직자임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말이 허위로 드러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한다. 교회 임직자라면 성경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는 영적 무지 때문이다. 죄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성경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누구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한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도, 수없이 드린 제사로도

죄의 해결이 불가능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은 복음 전도의 중심이 된다. 죄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하다. “교회 오라”고 말만 하고 죄를 깨우쳐 주지 않는 전도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다. 참된 전도는 처음부터 회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첫 말씀이 그것을 대변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죄의 특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죄는 마음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행위를 넘어서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렇다.

“여러분이 믿은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고후 13:5).

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데서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에 범죄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는 교활하다.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고 말하게 한다. 유혹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활하고 끈질긴 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마음만 먹어도 이미 죄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린다. 심지어 원하지 않는데도 죄를 짓게 한다. 따라서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오른쪽 눈을 빼더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일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영생이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죄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 의지적으로 죄를 미워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를 멀리해야 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시 97:10).

산상수훈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억제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힘으로는 안 되고 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스 4:6).

성령을 좇아 행하면 된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쉬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을 좇아 행하며 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손신국 목사
(평택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영어로 'The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데 주후 4세기부터 교회 역사에서 죄의 실상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분류되어온 죄론입니다. '7대 죄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7주 동안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상을 파헤치고,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첫 번째 죄요,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달아야만 남은 죄들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죄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이기에 가장 끈질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늙어 죽을 때까지 깊이 뿌리내려 있는 죄입니다. 어떤 죄는 어린아이 때는 잘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의 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의 이익을 행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누군가를 속이는 죄를 범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아주 어릴 때에도 있고, 나이 많은 때에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아도 있고, 사회적 위치가 낮아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있어도 교만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가 어느 단계, 어떤 수준, 어떤 연령에 이르렀는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VS 자기 자신 안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 양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다른 모든 악들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는데 교만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소유욕에 대한 금욕이 이뤄져도 교만은

존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교만을 ‘과도한 자존심(an inordinate self-esteem)’이라고 정의했고,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비합리적인 우월성의 자만, 자신의 인품을 자만하는 생각(an unreasonable conceit of superiority-an overweening opinion of one's own qualities)’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 신전 문 위에 ‘너 자신을 알라’고 크게 써 놓았지만 인간은 결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제1권 1장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중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그 묵상 후에 낮아져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때까지는 진실한 자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자신에 대한 진실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특징은 자신이 짐승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이하의 수준이 될수록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짐승에 가까울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악마처럼 변해가고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 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간적, 물리적 위치를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존의 위치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범죄 한 이후 인간은 오직 자신 안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서 갈 곳을 찾고,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고,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자기만족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창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9절).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대표적인 엘리트였고, 세리는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두 사람의 자기 인식을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14절).

예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며,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의 교만을 보십시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1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십일조를 냅니다’”(11~12절).

이 짧은 기도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상 한 번 부르고 전부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NASB번역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행하여 기도했다(Praying this to himself)”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자기에 대해서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없고, 자기 자신의 방에 갇혀 자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영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교만한 영혼은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이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만족의 이유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둘째, 그의 기도에는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신뢰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신뢰 또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도덕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야 합니다. 도덕의 한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는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존입니다. 자기의존은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넷째, 그의 기도에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보다 많이 행하고 있다는 자만심과 위선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자랑입니다. 자기자랑 또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니까 통상적인 금식 규례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대개 땅 소산의 10분의 1을 내던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업적과 헌신의 대차대조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병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침개입니다. 뒤집지 않았다는 것은 한쪽은 완전히 타들어 가고 있는데 한쪽은 익지 않은 것입니다. 한쪽은 설익은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13편에 계속>

기획_크리스천과 품성 시리즈

1. 신앙은 품성으로 드러난다 2. 온라인에서도 지켜야 할 품성 3. 당신의 말에 숨어있는 품성

신앙은 품성으로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품성으로 예수와 교회 판단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노력해야

‘품성(品性)’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는 품성을 “사람 된 바탕과 성질,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말로 인격, 인품 등이 있다. 영어로 품성은 ‘Character(캐릭터)’이다. 웨스터 사전에서는 품성을 “한 인간의 개인적 본질을 구분해주는 속성이나 특성들의 통합된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품성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캐릭터)과 성질이다. 인품, 됨됨이, 성향, 기질, 성격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다. 크리스천에게는 믿음뿐만 아니라 품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나는 예수를 좋아하나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어느 주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려 했다. 그런데 간디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내원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 간디는 교회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다.

간디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힌두교인으로 남았던 한 가지 이유는 좋지 못한 품성을 가진 크리스천 때문이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좋은 품성을 가지지 못한 크리스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손가락질 하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 눈만 뜨면 벌어지고 있다. 도가 지나친 정치적 발언과 막말을 일삼는 목사, 편법을 감행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대형교회 목사, 부자세습에 반대하는 목사가 암에 걸리자 “세습 반대하니 하나님께서 암 걸리게 하셨다”며 조롱한 동료 목사, 딸 친구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목사 등 교회와 일부 목사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영적인 리더들이 일탈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신앙이 성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품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문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을 보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믿음이 먼저인가? 품성이 먼저인가?

미혼 크리스천들에게 그 유명한 난제(難題)를 던지면 뭐라고 대답할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

“믿음이 먼저인가? 품성이 먼저인가?”

H자매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신앙보다 품성”이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품성 좋은 사람은 당장 믿음이 없더라도 나중에 전도했을 때 좋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무례하고 남 배려할 줄 모르면 곤란해요. 성격이나

인격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은 고쳐 쓰는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는 품성이 중요하다. <좋은 품성은 성공의 동력이다>의 저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펙보다 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지식, 정보, 창의력, 기술 등)에 품성을 곁한 것이 성공이다. 능력이 있어도 품성 수준이 낮으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책 <좋은 품성은 성공의 동력이다>의 부제가 ‘행복하려면 품성을 계발하라’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

것이 아니다. 2014년 개교한 충남삼성고등학교도 ‘바른 품성’을 건학이념으로 내걸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눈앞의 대학입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66일 기적의 용광로(MSM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이 66일 동안 합숙하면서 9가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9가지 습관은 시간 준수, 올바른 식사 예절, 규칙적인 운동 습관, 인사 잘하기, 바른 말 쓰기, 규칙 지키기, 바른 수업 태도, 학습계획 수립, 자기주도 학습이다. 사소한 보이는 습관과 매너를 함양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신기한 것은 입시위주 교육을 하지 않는

5:3~10).

팔복 중에서 앞의 네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와 품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고, 뒤의 네 가지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품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이 여덟 가지 품성을 지닌 자는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품성에 대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22~23).

사랑에 대한 정의는 또 어떠한가. 성경은 사랑을 설명할 때에도 품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고전 13:4~6).

이밖에도 순종, 정직, 감사, 겸손, 근면, 배려, 자선, 기쁨 등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 사도들의 생활지침이 모두 품성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는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타기, 노약자를 보면 조용히 자리 양보하기, 환경과 자원보호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기(종이컵 대신 텀블러,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에코백),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재래시장이나 노점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한테 물건 값 깎지 않기,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해서 출입문 잡아주기, 택시비 거스름돈 받지 않기 등이다. 사소한 보여도 우리나라 천만 크리스천이 이 일을 실천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품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좋지 않은 품성 가진 크리스천으로 인해 제2의 간디가 나와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소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방법

1. 행복한 불편함(텀블러, 장바구니, 대중교통 이용)

2. 택시비 거스름돈 받지 않기

3. 재래시장에서 물건값 깎지 않기

4. 뒤에 오는 사람 배려해 출입문 잡아주기

해서는 좋은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품성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미국 인명사전에 졸업생 100명당 3명이 등재되는 학교, 하버드와 예일 등 명문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 세계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 도서관을 보유한 학교, 미국 사회 전역에 걸쳐 시대적 지도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꿈의 학교’로 통하는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가 명문학교가 된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과 시설이 아니다. 바로 건학이념 때문이다.

“Not for Self(이기심을 버려라).”

필립스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을 미국과 세계 사회에 이바지할 리더로 길러내기 위해서 건학이념을 강조한 교육을 실천하는데 모든 열정을 기울인다고 한다.

품성을 강조하는 고등학교가 미국에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 졸업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17년 1회 졸업생 9명, 2회 졸업생 12명, 3회 졸업생 9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충남삼성고등학교에서는 바른 품성을 강조한 교육이 가져 온 고무적인 성과라고 여기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성경에서도 크리스천의 품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 크리스천의 좋은 품성을 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팔복(八福) 교훈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마

기고

크리스천의 품성에 대한 고찰

참된 품성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때 형성



박동순 명예장로
(OCC공동체, 초대
주 이스라엘 대사)

‘품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는가? 마음이 짐?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얼굴의 생김? 입은 웃? 품성은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품성은 사람 개개인에 관한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품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성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 품성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좋은 품성’과 ‘나쁜 품성’을 대비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인들과 달리 크리스천에게는 특별히 좋은 품성이 요구된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교회 다니다고 하는데 품성이 좋지 않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좋은 품성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참된 크리스천의 품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겉모양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거리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다면 우리의 품성과 행동도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품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됨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품성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척도이다.

품성은 우리의 성실, 행동, 도덕, 성질에서 그 진실이 드러난다. 품성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윤택유 역할을 하거나 그 반대 작용을 하게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품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다. 참 크리스천의 품성은 단순히 개인의 기질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령의 열매의 총화이다.

좋은 품성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상승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생활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선하게 행할 수도 있고 나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시할 수도 있다.

품성은 우리의 생활을 조정한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추구하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랑하고, 화평하며,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며, 성실하고, 온유하며, 자기통제를 행해야 한다(갈 5:22~23).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형성될 수 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요한 품성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서 나온다. 그 밖에도 용서, 겸손, 공정, 용기, 우정, 감사, 책임, 만족, 관용, 순결, 거룩, 자신, 격려, 순종, 지혜, 긍휼, 열정, 솔선수범, 부지런함, 사려 깊음 등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품성이다.

나의 품성 점검해보기

그렇다면 내가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 질문들은 나의 품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긴다. 둘째, 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로 향한다. 셋째, 나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넷째,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다섯째,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우려한다. 여섯째, 나는 집에서든 허를 다스린다. 일곱째,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여덟째,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는다. 아홉째,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한다. 열째,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돕는다(표 참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해보면 자신의 성품이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크리스천의 좋은 품성은 용모나 마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선하고 좋은 품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품성은 거짓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다.

선한 품성은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에 앞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요란한 소리나 이런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고 한자가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해서 목숨을 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 등이 바로 크리스천의 좋은 품성이다.

품성은 책에서 배우거나 설교를 듣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본받음

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번 얻었다고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품성은 개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다.



번호	문항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긴다			
2	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로 향한다			
3	나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5	나는 내 장래에 대해 우려한다			
6	나는 집에서든 내 허를 다스린다			
7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8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는다			
9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간구한다			
10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돕는다			
11	나는 삶을 축복한다			
12	나는 내 성공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불안하다			
13	나는 신사이다			
14	다른 운전자나 나에게 불합리한 운전을 해도 나는 그를 곧 용서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 사는 것을 좋아한다			
16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			
17	나는 기도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한다			
18	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19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더 생각하면서 잠을 깬다			
20	나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목소리를 높인다			
21	나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과도 잘 지낸다			
22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3	나에게 나쁜 생각이 날 때는 가능하면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			
24	어떤 비극이 일어난 것을 듣거나 읽었을 때 내 마음이 매우 아프다			
25	나의 현재 모습을 좋아한다			
26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기를 희망한다			
27	나는 인내성 있는 사람이다			
28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다룰 때, 나는 그를 피하거나 침묵으로 대한다			
29	나는 내 돈 주기를 즐거워한다			
30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31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괴로워한다			
32	나는 내 생명이 참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33	나는 불평을 한다			
34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당황하게 해도 나는 평정을 잃지 않는다			
35	나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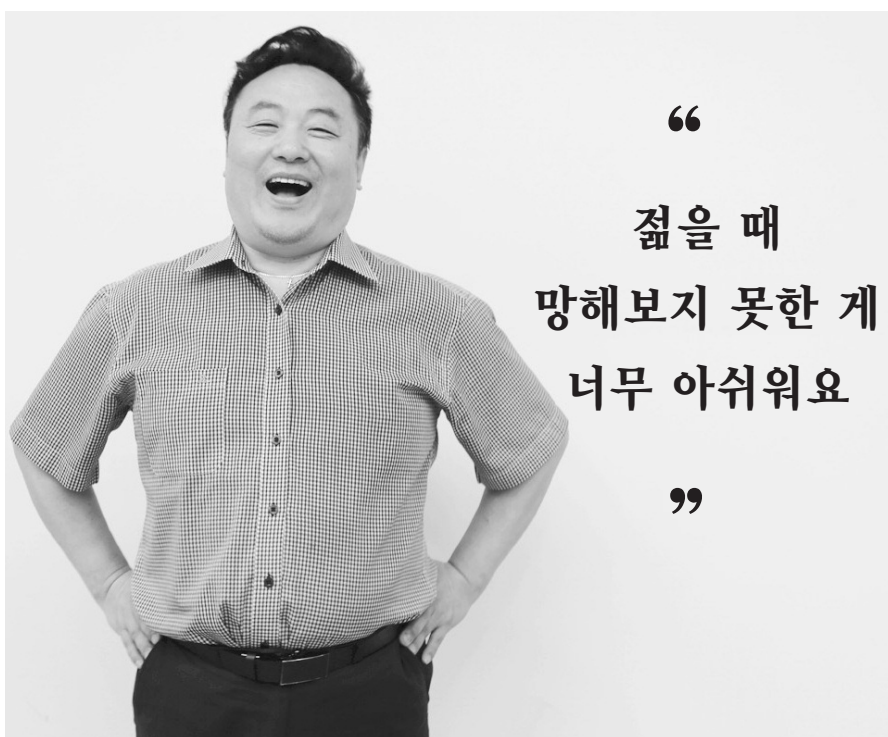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수백만 원씩 쓰던 백억대 자산가였다. IMF와 이혼이라는 곡절이 있었지만 끄떡없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다.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걱정 없었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쫓딱 망하고 말았다. 이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 홍정화 집사(서초A공동체)는 “망해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더라”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망해보니까 알겠더라...

백억대 자산가에서 빈털터리 된 홍정화 집사



부도 이후 홍정화 집사는 사업 경험을 살려 기업들을 돕고 있다.

“
젊을 때
망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

홍정화 집사가 살아온 이야기가 어쩌나 재미있던지 두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세상 부러울 게 없던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 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쫓딱 망한 이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지금의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닮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오렌지족 홍 집사, 하나님을 만나다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홍 집사는 타고난 사업가였다. 서른 살에 S전자 과장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학술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를 차려 자산을 100억까지 불렀다.

“자산 2천억을 모으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실제로 사십대가 되기 전에 2천억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돈과 명예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가진 것이 돈밖에 없었다. 유흥 생활을 즐겼다. 홍 집사는 강남 일대에서 화려한 유흥 생활을 즐기던 일명 ‘오렌지족’이었다. 하루에 수백만 원씩 썼다. 유흥비로 한 달 만에 웬만한 사람들의 연봉만큼 썼다. 그래도 타고난 사업 수완 덕분에 회사는 커져만 갔다. 모두 힘들었다던 IMF도 홍 집사에게는 타격이 되

지 않았다. 몇몇 사업을 정리하고 휴식 겸 유학도 떠났다.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나중에 할 거 없으면 교수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느 날 한인교회 목사님이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해서 방문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컴퓨터를 수리하다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갔다. 고등학생 때 누나를 따라 대학선교회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호기심이 생겼다. 화학과 교수 출신인 목사님과 대화도 무척이나 잘 통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의대생들이 모이는 대학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나중에 저도 의대에 갈 거니까 선배들이랑 미리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누나를 따라 대학선교회 모임에 갔어요. 그곳에서 일대일제자양육 비슷한 걸 했는데 대학생 누나가 성경에 대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아는 것도 없는데 뭘 만나 싶더라고요. 고3이 되고 자연스레 안 갔는데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해주는 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한 구절 말씀이 평생 목말라했던 진리에 대한 감동을 단숨에 해소시켜 줬다. 그날 이후 성경 공부에 빠져 살았다. 20년 넘게 피어온 담배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즐겁고 행복했다.

“저는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이나 피는 골초였어요. 어느 날 한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당장 담배를 샀을 텐데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일 사야겠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길로 담배를 끊었어요.”

달콤한 말씀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업체를 관리하던 아내(전처)가 별안간 미국에 와서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 많던 재산과 사업체를 모두 전처에게 양보했다.

“미국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랑 2002년에 다시 한국으로 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2004년부터 아내가 다니던 온누리교회에 출석했고요. 사업은 자신 있었는데 경쟁업체가 많아서 성장이 더뎠어요.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해야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을 책임질 수 있는데 첫째 매출이 목표의 절반이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성장해서 매출 100억까지 만들었어요.”

자신이 100억이 넘는 시절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다.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무역 및 유통회사를 차렸다. 30억 정도 빌렸는데 매년 아슬아슬하게 부도를 피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편인줄 알았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던 해에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이었어요. 남대문5가(현재 회광공동체) 사역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 회사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500원짜리 짜장면과 바둑

평소 길에서 마주치면 피해를 볼까 서둘러 지나치던 노숙자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어쩌다 한 형제를 만나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종로에서 2,5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서 바둑을 3시간씩이나 뒀다. 짜장면이 물리고, 홍 집사의 바둑실력이 10급 정도 되자 그 형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남대문5가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끔 사지말절한 사람이 노숙한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들어보면 죽지않고 살아 있는게 감사할 정도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았어요. 그 큰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돼요. 남대문5가 사역한다고 하면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치켜세워주시는데 사역자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뿐이에요.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게 은혜고 기쁨이라 사역하는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

2017년 말, 2억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났다.

“남대문5가 사역을 하기 전에 망했으면 아마 저는 폐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도를 막아 주셨구나란 생각도 들어요. 그 전에는 내가 망하면 하나님을 계속 믿을까? 교회를 다닐까? 걱정을 했었어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거니까 교회를 더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망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는 것예요. 이 말씀을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본부장)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게 되요. 행복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홍 집사는 해외여행을 가면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을 즐겨 찾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 홍 집사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남대문5가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그곳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다.

“젊을 때 망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고급 요트를 타고 여행해야 즐거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내랑 저녁에 자전거만 타도 행복해요. 자산 2천억을 쌓는 삶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남대문5가 사역에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남자 사역자가 별로 없어서 어렵거든요.”

문의: 02-3215-3434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칼창 생리대, 문화 소외, 결식아동... 이 시대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한숨 나오는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다.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당연한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온전한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초적인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결핍에 허우적대고 있다. 그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할까? 교회와 크리스천이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도울 수 있을까?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군포 하나로)를 찾아가 그 방법을 물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뭐가 이렇게 비싸?”

생리대가 가득 쌓여 있는 마트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게 된다. 생리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도 허다하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서성이며 고민하다 생리대 하나를 집어 든다. 유쾌하지 않은 이 일을 한 달에 한 번 겪어야만 한다. 이 유쾌하지 않은 일상이 불쾌함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실제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비싼 생리대는 공포의 대상이다.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위생용품인 생리대가 엄청난 사치품이 될 수도 있다. 오죽 돈이 없었으면 비싼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이나 여러 겹 포갠 휴지로 생리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생리기간이 되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학교에 아예 가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시력에 맞는 안경을 구매해서 불편을 해소하지만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안경 하나 맞추는 것이 꿈같은 일인 경우가 있다. 안경 맞출 돈이 없어서 눈을 잔뜩 찌푸려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급식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나라의 도움으로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방학이 되면 사라진다. 그때부터는 끼니를 때울 방법이 없어서 배를 곯아야 한다. 21세기에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다.

누구나 쉽게 즐기는 영화 관람도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누군가는 쉽게 쓸 수 있는 단돈 만 원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며칠 동안 생계를 이어가야 할 생활비이기 때문이다. 여러 매스컴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물 나는 사연을 접한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수많은 단체와 기관, 개인들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도 개정되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

리대와 안경 등을 후원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그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졌다. 이제는 방학이 되어도 끼니를 걱정하지 않도록 방학 동안에도 맛있는 급식이 지원된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꼭 해야 할 일

하지만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 도움이 더 필요하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꼭 해줘야 할 일이다. 바로 '정서적, 영적 지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온전한 돌봄과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거나 받지 못하고 있다. 군포 하나로 부속시설 꿈의 집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은 수급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이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믿음이(가명, 12세)네는 다문화가정이다. 아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말이 서툰 엄마는 믿음이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믿음이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 어린애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믿음이에겐 따뜻한 어른들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소망이(가명)는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혼자 시간을 보낸다. 소망이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거의 매일 혼자 있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을 수 없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소망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밖에 없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소망이의 언어는 도저히 초등학교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거칠다. 소망이에겐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집을 나와 군포 하나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랑이(가명, 18세)는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집에서 뛰쳐나온 사랑이는 군포 하나로에 와서도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기 때문이다. 군포 하나로를 찾아온 봉사자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한 아이가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벽면에 꿈의 날개를 그리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재능기부, 멘토, 학업 지원 등 정말 다양한 봉사분야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한다. 김형근 소장(군포 하나로)은 아이들을 돕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 받고 가는 봉사자들이 종종 계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툭툭대고, 수업 시간에 5분도 못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상처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웃음).”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었다면 그 다음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실천해야 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 대부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을 공부하고 싶은데 가정이나 기관이 지원해줄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체능 분야에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술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이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고,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다. 박희망 형제(가명, 28세)는 군포 하나로에서 생활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범죄에 가담했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문제아였다.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면서 방황을 참 많이 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다.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다. 박희망 형제는 정말 많이 밝아졌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어주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준 어른들 덕분이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쉼터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학습, 생활지원, 현장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보호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상담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031-399-7997(군포 하나로)

다문화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서빙고 다문화사역팀, '다문화여름캠프' 개최

그들을 향한 오해나 편견, 지나친 염려는 거둬도 될 것 같다. 서로 말(언어)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서 다룰 수밖에 없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다문화가정을 향한 나쁜 시선을 말이다. 물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해결된다. 지난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팀(이하 다문화사역팀)이 경기도 양주시 휴리조트에서 주최한 '다문화여름캠프' 참가자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 뜨겁고 가슴 벅찬 현장에 다녀왔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정 구성원 38만여 명에서 2017년 다문화가정 구성원 96만여 명으로 7년 새 무려 252%나 증가했다.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을 향한 나쁜 시선을 거두고, 그들이 가정 내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과 어려움을 방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갈등과 어려움이 지속되면 서로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결국 가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팀이 다문화여름캠프를 개최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회적 편견과도 맞서야 하는 다문화가정을 위로하고,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문화여름캠프에는 35가정이 참가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포천 하랑예배(포천 평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양주 진리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에서부터 다문화여름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로 한국생활 11년차인 베트남에서 온 정서현 자매(남양주 온누리교회)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다문화여름캠프에 참석했다. 정서현 자매는 지난해 다문화여름캠프가 너무 좋아서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다.

정서현 자매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다. 지난해 6월 6일 남편이 천국에 갔기 때문이다. 정서현 자매는 11년 전 20대 초반에 시집와서 온갖 곡절을 겪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폭언을 쏟아냈고, 가정을 잘 돌보지도 않았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한국에 온 것이 후회가 됐다. 기댈 곳 하나 없이 방황하는 그녀에게 베트남 친구가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소개해줬다. 정서현 자매는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문화교실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남편과의 갈등으로 생긴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정서현 자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남편을 위해서



다문화여름캠프에 참석한 다문화가정들이 운동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고 있다.

기도하고, 가사와 육아도 더욱 열심히 했다. 그런 그녀에게 또 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남편이 만성음주로 인한 간경화로 생을 마감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정서현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남편이 입원할 때부터 임종까지 심방, 병간호를 도우면서 그녀 곁을 지켜줬다. 정서현 자매와 자녀들이 다문화여름캠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다. 그렇게 참가한 지난해 다문화여름캠프에서 정서현 자매는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

"저처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이번 다문화여름캠프에서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문화여름캠프의 백미는 누가 뭐라 해도 온누리 워십라이어가 선보인 특산이었다. 다문화여름캠프 참가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온누리 워십라이어의 특산에 맞춰 두 팔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행사장 천장을 뚫을 기세였다.

중국에서 온 설금홍 자매도 온누리 워십과

이어의 공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 설금홍 자매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분주한 삶을 살았다. 중국에서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고, 한국에 시집 와서는 육아와 집안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만큼 지쳐있던 그녀에게 온누리 워십라이어의 특산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지도 알게 됐고요. 육아와 집안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친 제게 힘을 주셨거든요"

포천 하랑예배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장기자랑도 특별했다. 하랑예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팀이 포천 평화의집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다. 대부분 사정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정이다. 하랑예배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시작되자 다문화여름캠프 참가자들이 숨죽이며 집중했다.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목소리가 초콜릿보다 달콤했다.

다문화여름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문화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송석근 목사(서빙고 다문화사역팀 담당)

의 메시지에 다문화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송 목사의 메시지에 다문화여름캠프 참가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유학생 손혜원 자매(양주 진리교회)의 마음도 움직였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결단했다.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들의 변화가 놀라웠다

다문화여름캠프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들의 변화가 놀라웠다. 베트남에서 온 황수지 자매(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남편 김영동 씨(49세)는 이번 다문화여름캠프에 참가하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다.

"보통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은 문화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가 있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평소에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김애진 자매의 남편 민인규 씨(50세)는 교회에 친밀감이 생겼다고 했다.

"교회가 다문화가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꼭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다문화여름캠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섬김이다. 서빙고 다문화사역팀, 남양주 온누리교회, 포천 하랑예배, 양주 진리교회 스태프들이 온힘을 다해 다문화가정을 섬겼다. 식사 안내, 예배시간 안내, 간식배부, 캠프파이어, 운동회 등 캠프가 진행되는 내내 스태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앞으로도 서빙고 다문화사역팀은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다문화여름캠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문의: 010-3426-4038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곳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영주 성내교회, 예천 상락교회, 의성 엄주선 강도사 순교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본지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를 깊이 사랑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순례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그 마지막 코스는 경상북도 기독교 순례지다. 경상북도는 예로부터 불교와 유교가 강하게 뿌리 내린 지역이다.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기 힘들 것 같은 그곳에도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그 중심에 영주시 성내교회, 예천군 상락교회, 의성군 엄주선 강도사 순교지가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은 불교문화가 융성한 지역이다. 영풍 비로사 석아미타 및 석비로자나불좌상(보물 996호), 비로사 진공대사보법탑비(경북유형문화재 4호), 영주 삼가동 석조당간지주(경북유형문화재 7호), 회방사 동종(경북유형문화재 226호), 영주 영전사 석조여래입상(경북유형문화재 324호), 백룡사 석조여래좌상(경북문화재자료 282호) 등 다수의 불교문화재가 있다.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교 역사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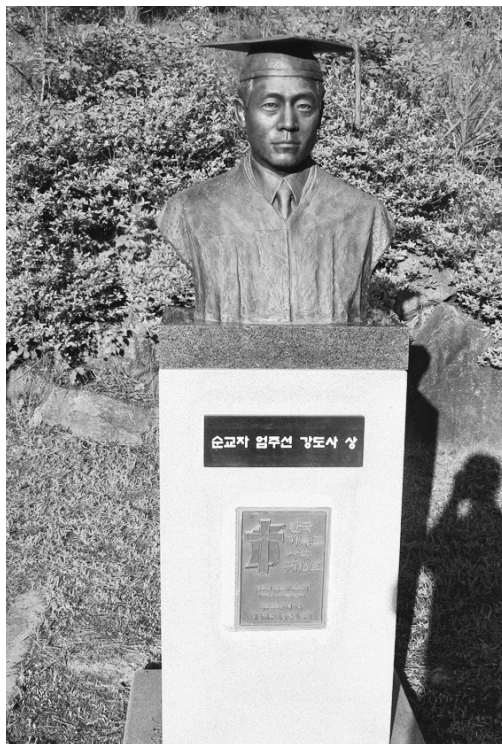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아낌없이 채워주는 '성내교회'

뜨거운 햇볕이 기승을 부린 지난 22일,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이다. 그곳에 식지 않는 신앙 열정을 품고 있는 교회가 있다. 성내교회다. 성내교회는 무려 112년 동안 이 지역을 섬기고 있다.

1907년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들과 부산진교회를 섬겼던 심취명 장로 등이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김기풍, 김창림, 이시동, 장사문, 이상호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예배모임이 성내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1909년 3월 예배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초가를 구입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그때부터 이 예배모임을 풍기교회(성내교회의 초창기 이름)라고 불렀다.

풍기교회는 교육 사업에 큰 공헌을 했다. 1916년 영신학교, 1920년 기독교여자야학회를 설립했다. 태평교회(현 대웅교회), 서사교회 등을 세워 지역복음화에도 헌신했다. 해방 이후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교회 이름을 성내교회로 바꿨다.

112년이 지난 지금도 성내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고 있다. 2004년에는 사회봉사관을 세워 독거노인과 결손가정을 위한 식사봉사를



엄주선 강도사 순교지 동상, 성내교회 역사박물관, 상락교회 엄주선 강도사, 양재연 장로, 양혜석 선생 순교비(좌측부터 시계방향).



하고 있다. 탁구, 전통 민화, 오키리나, 프랑스 자수 등 문화교실도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내교회에는 큰 자랑거리가 있다. 역사박물관이다. 112년 전통을 자랑하는 성내교회의 자부심과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연도별 교회사진, 역대 담임목사와 장로 사진, 주보, 헌금 주머니, 당회록, 성도들의 성경필사, 1970년대에 사용하던 강대상, 오르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성경책, 결혼증서 등 성도들이 사용하던 물건도 교회의 중요한 역사로 여기고 보관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역 복음화와 교육에 힘썼던 성내교회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다. 최갑도 원로목사의 생생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11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신앙 유산 물려 준 '상락교회'

성내교회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 달리면 예천 상락교회가 나온다. 상락교회는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상락마을에 위치해 있는 작은 시골교회다. 상락교회가 있는 상락마을은 뿌리 깊은 불교문화는 물론이고, 유교 문화의 본거지 중 하나다. 상락마을은 고려시대 '부리기'라고 불렸는데 부리기는 '부처님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상락이라는 지명이 옥도와 정도라는 단어를 뜻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융성했던 고장이었다. 보물 제 457호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이 있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 초간 권문해 선생의 할아버지 권오상이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경상북도유형문화재 210호로 지정된 '용궁 향교'

도 있다. 이처럼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린 곳에서 상락교회는 무려 11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락교회의 자랑 '100주년 기념관'을 둘러봤다. 상락교회 113년 역사를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사진과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백승룡 목사는 11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상락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락교회는 다음세대에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 준 교회입니다.”

상락교회는 1906년 예천군 지보면 상락마을에 살던 양조환이 전병원, 김낙진과 함께 자신의 사랑방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됐다. 그들의 전도로 마을 전체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다. 당시 상락마을은 예수 믿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크게 부흥했다. ‘낙동강 뱃사공만 빼놓고는 모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복음에 눈을 뜬 상락마을 주민들은 자식들에게 가난과 무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주민들과 교회가 앞장서서 사립경세학교를 설립했다. 사립경세학교에서 상락교회 목사와 장로는 물론이고 대학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했다. 박사학위 소지자 70여 명, 목회자 40여 명, 장로 50여 명, 순교 및 순국자 3명을 배출했다. 신평교회, 어신교회, 갈동교회, 우망교회, 봉정교회, 축동교회, 풍양교회, 지보교회 등 총 8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상락교회 100주년 기념관 옆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고, 6.25 한국전쟁에서 순교한 양재연 장로,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순사에게 죽임을 당한 양혜석 선생, 공산군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순교한

엄주선 강도사의 순교비가 있다. 그 순교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 선배들의 고귀한 순교정신을 묵념해보는 것도 좋다.

경상북도 유일의 순교지 그 주인공 '엄주선 강도사'

경상북도 기독교 유적지 마지막 목적지는 엄주선 강도사 순교지다. 엄 강도사 순교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1028번지에 위치해 있다. 경상북도에 있는 유일한 순교지다. 2013년 한국기독교사적 제 10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기독교 유적지다. 엄주선 강도사 순교지에는 엄주선 강도사 동상과 기념비가 있다.

엄주선 강도사는 1919년 5월 23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출생했다. 1935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부친과 함께 예천 상락교회에 출석했다. 1949년 12월 장로회신학교(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5월 경상북도 청송군 화목교회에 부임했다. 1951년 2월 17일 홀로 기도하던 엄주선 강도사는 갑자기 들이닥친 공산군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당시 인민군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약속하면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엄주선 강도사는 죽창으로 19군데나 찔려 순교를 당하고 만다. 엄주선 강도사 순교지에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켰던 강직한 신앙과 열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문의: 성내교회 054-636-6273
상락교회 054-653-3345



지난 6월 26일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케이크 커팅식.

“어르신들의 행복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초중앙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지난 6월 26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하 서초중앙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김성종 장로(온누리교회), 박준기 관장(서초중앙노인복지관), 정호욱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박성중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종숙 서초구의원,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

르신 6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서초중앙노인복지관 10주년 기념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김성종 장로(온누리교회)의 기도, 시니어 합창단(서초중앙노인복지관)의 특송, 이상준 목사의 말씀 선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2부 기념식에서는 개관 10주년 축하영상 상영, 박준기 관장의 인사, 정호욱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축사,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표창, 케이크 커팅식,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박준기 관장(서초중앙노인복지관)은 “앞으로 10년도 서초구에 사는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결혼적령기 자녀 둔 ‘5060 부모교실’ 세미나

지난 22일 가정사역본부 크리스천결혼문화팀이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5060 부모교실 세미나’를 개최했다.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 115명이 참석했다.

주수일 장로(진새골 온누리교회) ‘아름다운 떠나보냄’, 이무송 집사(바로연 대표) ‘내 자녀가 꿈꾸는 결혼’을 주제로 강의했다.

주수일 장로는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욕심을 내려놓고, 가정에 대한 성경적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애순 권사(신용산공동체)는 “자녀의 결혼준비는 당사자들에게 대대하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두란노 일일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 일일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7월 2일(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60명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 중인 커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3년 미만의 신혼부부다. 회비는 24만 원이다.

두란노 일일결혼예비학교는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결혼의 성경적 원리(다툼의 축복), 부부의 재정,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부부대화&가정의 영성)를 주제로 윤길중 목사, 박상훈 목사, 유영순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456



서빙고 농어촌선교회에서 천안 화성교회에 승합차를 기증했다(우측 세번째 박준식 목사).

네팔 마을 주민 17명 세례 받아

고레다라 마을 복음화 비전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지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6월 20일(목) 마을 주민 17명이 세례를 받았다. 또한 고레다라 마을에 있는 은혜교회가 ‘마을 복음화 비전’을 세웠다. 마을 복음화 비전은 앞으로 10년 안에 마을

주민들을 모두를 전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은 2015년 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전통적인 힌두교 마을이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마을이 복구된 이후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천안 화성교회에 차량 기증

서빙고 농어촌선교회

서빙고 농어촌선교회가 도농브릿지지역(농어촌교회 자립 및 사역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위탁판매)에서 농물지를 판 수익금으로 천안 화성교회에 차량을 기증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

큰 교회는 농어촌 미지립교회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데 화성교회에 차량을 선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했고, 박준식 목사(천안 화성교회)는 “이 귀한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현주 기자

2000선교, 비타민C 컨퍼런스 개최

2000선교가 지난 6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비타민C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비타민C 컨퍼런스는 온누리교회의 핵심 가치, 목회철학, 선교 방향성을 나누는 선교사를 위한 집회이다.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본국 선교사, M선교사 등 34명이 참석했다.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6109	진캐서린	성북	1136135	신명환	여호수아	1136163	강주호	CH630	1136190	유병수	CH630
1136110	유일기	도곡	1136136	고 울	여호수아	1136164	한혜수	Bridge33+	1136191	김유석	CH630
1136111	김현이	서초C	1136137	김지경	송파A	1136165	허예린	Point5	1136192	신미정	이수
1136112	장현진	부천 희락	1136138	김윤정	강촌	1136166	김병현	온누리미션	1136193	전옥근	서초B
1136113	성기훈	평택	1136139	이수현	김포	1136167	하태규	진새골	1136194	남우림	허브
1136114	조아영	평택	1136140	신성녀	용산	1136168	하정훈	진새골	1136195	권수진	OEM
1136115	최주영	평택	1136141	박은영	CH630	1136170	이병화	진새골	1136196	방유석	Bridge33+
1136116	강상우	송파A	1136142	김하윤	CH630	1136171	하선미	진새골	1136197	박지환	SNS
1136117	조대익	Point5	1136143	박세리	CH630	1136172	백선혜	진새골	1136198	황현성	하늘
1136118	성해라	인천 소망	1136144	신슬기	CH630	1136173	민정식	진새골	1136199	주수한	하늘
1136119	김수현	Pole2	1136145	한지은	CH630	1136174	유혜리	진새골	1136200	김소람	하늘
1136120	김동원	서대문	1136146	김혜지	CH630	1136175	박규현	대전 Belief	1136201	김유림	하늘
1136121	임하니	Gil	1136147	이택민	CH630	1136176	김나연	CH630	1136202	노현우	SNS
1136122	공현도	강남A	1136148	김예림	CH630	1136177	김성은	CH630	1136203	김민경	SNS
1136123	이슬기	인천 소망	1136149	김하린	CH630	1136178	이혜선	CH630	1136204	복정인	SNS
1136124	김가영	도곡	1136150	김민혁	CH630	1136179	최영운	CH630	1136205	이상진	SNS
1136125	박풍호	양천	1136153	김서윤	서빙고	1136180	최세원	CH630	1136206	강동욱	SNS
1136126	이기범	여호수아	1136154	김시인	Bridge33+	1136181	한종현	CH630	1136207	박대범	SNS
1136127	오예림	부천 소망	1136155	이호군	강서	1136182	이경진	수원 서누리	1136208	강하람	SNS
1136128	권세라	여호수아	1136156	오형정	수원 서누리	1136183	한순애	하나	1136209	김이진	SNS
1136129	한성은	여호수아	1136157	조성우	분당A	1136184	김영현	CH630	1136210	이용한	SNS
1136130	이규식	여호수아	1136158	곽민정	분당A	1136185	최문원	한강	1136211	조혜원	SNS
1136131	강명진	여호수아	1136159	이승연	CH630	1136186	장미희	CH630	1136212	채종혁	SNS
1136132	이시원	여호수아	1136160	표승희	CH630	1136187	Ashley park	CH630			
1136133	민다솜	여호수아	1136161	은채원	CH630	1136188	이주희	CH630			
1136134	최혜지	여호수아	1136162	권혜진	CH630	1136189	김용빈	CH630			

6월 세례자

■ 서빙고	이성민 이진희	권라람 180828	어종훈 임수진
김민정 850929	이재은 171020	권태훈 이정선	윤로이 180220
김은경 720817	이성윤 장은재	김 율 170819	용성대 정선영
김점옥 490915	이하임 170719	김윤진 전수지	이소망 170718
김택식 580814	이창훈 송경아	김도빈 170630	이광웅 윤혜경
김화숙 610715	최유하 180514	김태훈 이유정	이예나 170630
손성훈 841005	최재하 유현정	김동진 180205	이재영 이고은
유백운 790215	최은을 170711	김성수 박소정	한주아 171128
이성민 830429	최 원 정빛나	김리나 170727	한우희 김은호
이세영 610207	최하은 171020	김성훈 이경희	홍주는 180810
임선희 620707	최창진 윤수련	김리안 181220	홍요섭 여은주
전금중 430219		김성훈 이경희	
정태준 670421	■ 양재	김유안 190117	■ 대학청년
조현욱 560220	김소은 850315	김재찬 주영혜	여호수아
입교	심호술 860120	김주원 180331	강동요 841216
김성은 970626	이경준 971107	김준호 정현주	김민호 880919
박준서 010116	이다준 030611	손예나 180630	박향희 891211
유아	조주연 750419	손병희 고정미	이신영 901229
김강울 171202	주영혜 880212	신인아 170711	
김대웅 신사랑	홍정민 780704	신일환 김가은	허브
변승민 180921	황미애 470815	심연서 170804	입교
변상호 배현경	황송택 800108	심우석 김열애	김신희 000125
이재이 190421	유아	여리아 181203	박지원 980214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이경자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우리 엄마는 슬하에 딸 셋, 아들 하나를 두시고 힘겹게 결혼생활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위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셨다. 나도 그런 엄마를 잘 따랐다. 고등학생 때 종교적 대립으로 인해 엄마와 관계가 냉랭해졌다. 서로 속마음을 나누기 힘들 정도로 마음에 벽이 생겼다. 늘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엄마! 사랑해”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각자의 종교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다. 어느 날 엄마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3년 정도 치료를 잘 받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곧바로 입원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암이 간과 폐까지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고생만 한 우리 엄마가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엄마는 우리가 걱정할까 봐 씩씩하게 치료를 받으셨다. 의사선생님께서 기적이라고 할 만큼 잘 견뎌내고 계셨다. 하지만 엄마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엄마가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것

“엄마! 사랑해”

이었다. 나는 또다시 엄마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엄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곁으로 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문득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가 떠올랐다. 그때 엄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기도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일꾼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셨다. 새신자 등록을 하고 일대일제자양육도 신청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갔다. 엄마의 부재로 슬픔에 놓일 때마다 양육자님께서 늘 따뜻하게 손잡아주셨다. 양육자님은 “사랑은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라며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도 해주셨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도해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양육자님과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동역자를 찾습니다



/ 이승미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빛을 나누는 학교’에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를 더 알게 됐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MK(선교사 자녀) 요한이가 재능기부 선생님들께 남긴 감사인사다. 매년 여름이면 여러 성도들이 선교지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와 동시에 여름은 훈련과 안식을 위해 한국 땅을 밟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Acts29비전빌리지 훈련팀과 2000선교본부 재능기부팀은 2017년 여름부터 3년째 ‘빛을 나누는 학교’를 열고 MK들을 섬기고 있다. 수십 명의 재능기부 선생님들이 전통적인 과목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수업과 체험학습을 준비해서 MK들에게 따뜻한 만남과 풍성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여름에도 빛을 나누는 학교가 열릴 예정이다. 각지에서 온 유치부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MK들이 부모님과 함께 Acts29비전빌리지에 모인다. MK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MK들을 사랑하고, 사전 교사 워크숍에 참여하실 수 있고, 1회 혹은 여러 번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

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MK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MK들이 선교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의 수가 매우 적고, 그 종류도 제한적이다. MK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상상만 해왔던 직업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보고, 미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MK들의 직업체험에 도움을 주실 각 분야 직업인을 찾고 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선교사님이나 MK들을 가까이 만날 기회는 적었다. 그러나 빛을 나누는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미약한 지식과 재능으로 MK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 멀리서 오가는 수고가 힘겹게 느껴지다가도 MK들을 만나고 오면 힘이 생겼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은 성도님들을 애타게 기다린다.

학업, 예체능, 직업체험 봉사자 모집
기간: 7월 15일~8월 9일(조율가능)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문의: 010-2902-2763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서영주 성도(서대문공동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지인의 소개로 전도폭발훈련을 알게 되었다. 사실 지난해에 하고 싶었는데 순장학교와 일정이 겹쳐서 올해 전도폭발훈련을 받게 되었다. 내가 순장이 되고 보니 순원들이 너무 없어서 이러다 순이 없어지겠다는 위기감이 느껴졌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전도해서 순원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절박함으로 오게 되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게 된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 주부터 새 순원을 일주일 동안 명씩 보내주셨다. 나중에는 새 순원을 다른 순에 배정을 하시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우리 순에만 계속 새로운 순원들이 오셔서 다른 순장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주위에서 복음전문을 외우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복음전문을 외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복음전문을 외울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

데 관계전도 7번과 2번의 노방전도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 결국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다. 전도를 하면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도 있었다.

전도의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다.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은혜의 자리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기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사명이 전도자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러 가는 기대감이 컸고, 대학생 시절 서클처럼 재미있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는 동안 힘들었던 기억보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전도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 이주민선교학교 수료 간증



/ 양기영 집사(인천 온누리교회)

새롭게 알게 된 이주민선교

인천 온누리교회가 송도에 예배당을 세우고 있다. 내년 4월 완공되면 입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송도에 온 수많은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의 비전과 그 이주민들을 역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 그리고 다음세대를 양육하려는 비전을 이루게 하려고 인천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고 계신다고 믿고 있다. 내년 입당 후에는 10개 이상의 이주민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

인천 온누리교회가 송도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갑자기 늘어난 성도들로 인해 일꾼이 부족할 정도였다.

이주민선교학교는 교회의 비전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신청했다. 매주 주일 3부 예배를 섬기고, 오후 4시 30분에 강의를 듣는 것이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5주차 강의까지 집중해서 들었다.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 관점’을 들으면서 이주민 선교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나 또한 이주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벗고 다른 세상에 눈을 뜨는

기분이었다.

노규석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수많은 이주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주민들을 고국으로 역파송 하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주민 선교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서는 그동안 이주민에 대한 몰이해가 많았던 것을 반성했다. 이란 형제의 간증과 양육진 선교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다.

이주민선교학교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 많다. 또한 이주민 선교에 준비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선교를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했다. 몽골어예배가 있는데도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주민을 위한 사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다. 이주민선교학교를 섬겨주신 모든 간사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팀장님의 뜨거운 기도와 조장님들의 섬김에도 감사를 드린다.

장로칼럼

그날의 대화



이해달 장로
(도곡공동체)

벌써 21년 전 일이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몇몇 분들과 함께 서빙고 온누리교회 샤이닝 글로리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다. 때마침 하용조 목사님께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시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

다. 그날 나누었던 대화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상의 대화였겠지만 온누리교회에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내게는 영혼을 깨우는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는 내 가슴 속 열정에 불을 지피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도 마음 깊이 각인되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그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교회는 목사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 목사는 그저 도구가 되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는데 쓰임을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둘째, 평신도가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목사는 하루 종일 믿는 사람들 틈에 끼여 살지만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성도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아버지학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다. 목사가 직접 나서서 아버지학교를 이끌었다면 세상 속으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많았을 텐데 평신도는 이해관계가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를 뛰어 넘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일에 아버지학교가 본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는다.

셋째, 비전이 이끄는 교회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는 교회의 어려움을 강조하시며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온누리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품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아버지학교가 잡자는 아버지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성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힘은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또 작은 교회들을 돕는 과정에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QT, 일대일 제자양육, 순예배 등 접목 가능한 사역을 배치시키라는 말씀을 하셨다.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을 정해서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섬김을 하라는 부탁도 하셨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무말 없이 듣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감동과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아버지학교 수료 이후 감사의 빛을 갠다는 심정으로 스테프로 섬겼다. 한 번의 섬김으로 끝내려 했던 섬김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학교가 교회 문턱을 넘어 기업체와 관공서, 교도소, 군부대 등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고 있다. 내가 전 세계 7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학교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용조 목사의 말씀 덕분이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나누었던 대화들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학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할 것이다.

권사칼럼

우리들 이야기, 내 이야기 '성경'



황선구 권사
(서초A공동체)

나는 교회를 40년 이상 다녔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취약하고 미비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

다고 생각되는 요즘, 나이 칠십이 가까이 다가온 지금, 하루라도 빨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1학기 구약성경 통독반에 등록했다.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움직였지만 무엇인가 부족했다. 몇 번의 성경통독반을 거쳤지만 매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후회스러운 시간이 많았고 성경에 대한 갈증은 더 커져 갔다.

지난해 6월 17일 큰 사고를 당했다. 뒷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내 차가 패차된 큰 사고였다. 그로 인해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열심히 따라가는 성경공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을 관리하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수업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류모세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는 '열린다 성경'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여러 번 망설이기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등록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열린다 성경 강의에 대해 알아보면서 성경에 대한 열린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자주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강의 기간이 짧기도 하고, 잘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열린다 성경을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강의가 시작되고 1주 후에 등록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첫 강의는 솔로몬의 이야기였다. 신앙도 좋고, 지혜로우며,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흠이 없을 것 같던 솔로몬의 또 다른 모습과 미주하게 됐다. 그에게도 이면의 그림자가 있음을 배우면서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일부만 알면서도 전체를 이해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이해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배경들도 이해해야 진실한 말씀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항상 알고 있는 것 같은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뽕나무, 겨자씨 등에 대한 해석도 흥미로웠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를 발견했더니 성경이 더 재미있고 가깝게 다가왔다. 예수님에 대한 배경들도 너무 흥미로웠다.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지역의 특성, 예수님 당시 문화적 배경 등을 배우면서 성경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그냥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껏 다양한 지식을 배경으로 성경을 읽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재미는 있지만 공부해야 할 것이 많겠다는 부담감도 있다. 하지만 성경이 주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온전히 이해하며 묵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더 많은 의미들을 찾고 싶다. 성경이 아주 가까운 우리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로 가슴 깊이 다가오기를 바란다.

신앙에세이

상처 입은 치유자, 故 박누가 선교사



이길탁 목사
(요셉공동체)

성경에서 인간을 가장 흔히 비유하는 동물이 있다면 양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사 53:6) 등과 같이 표현된다. 양은 순수하고 깨끗한 동물의 표상 같지만 휴가철 강원도 양떼목장에서 마주한 양

은 그 환상을 일거에 파괴해버렸다. 털은 지저분하다 못해 누렇게 떠 있었고, 엉덩이 부분은 변과 먼지가 겹겹이 쳐서 다가가고 싶지 않을 만큼 불쾌함을 주었다. 그런데 절묘하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은가? 깨끗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한 꺼풀만 벗겨놓으면 온갖 죄악으로 더럽기 짝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이 맞다.

‘오토버그’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는 양보다 우리 인간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동물

이 있다고 했다. 고슴도치다. 고슴도치는 늘 혼자 다닌다. 고독을 즐기기에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면 이성 고슴도치에 접근하는데 그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고슴도치의 등에 나있는 예리한 가시로 인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그래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다가오지도 못해 고슴도치는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우리는 양이고, 고슴도치다.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 다가오면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공식화된 도식 같다.

크리스천에게 놓인 인생의 갈래는 두 가지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처 입은 피해자로 살아갈 것인가’이다. 우리는 보통 후자의 삶을 살아가며 깊은 원한과 분노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얼마 전 한 편의 다큐 영화에서 인간의 이 일반적인 도식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삶을 만나게 되었다. 자신에게 다친 불행과 상처, 고통을 끌어안고 치유자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

며 십자가의 상처를 품고 인류의 치유자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었다.

6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신촌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 6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요셉청년부 소속으로 이번 해외 및 국내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청년들이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단 순히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대한 흥미가 아니라 진실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했다. 공동체 안에 몰랐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대감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싶었다. 이날 청년들과 함께 관람한 ‘아픈만큼 사랑한다’는 지난해 8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누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다. 간단한 의료 시설조차 없어 감기 같은 하찮은 병으로 죽어가는 필리핀 오지의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다년간 이방인 의사는 고물 버스 한 대로 30여 년 동안 의료봉사를 이어갔다. 그의 몸은 만산창이었다. 위암 발병과 수술, 그 후에 발견된 췌장암 발병과 수술까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먼저였던 박누가 선교사님. 복수가 차오

르고 300을 훌쩍 뛰어넘는 혈당 수치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조국에서조차 외면당한 산골의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그곳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앉아 이렇게 기도한다.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의 삶은 상처받은 피해자가 되어 모든 원한과 분노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속삭인다.

“내가 아파 봤으니까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고, 그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자국 빨리 다가가고 싶고...”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은 나를 피해자의 삶으로 추락시킬 수 없다. 아픔을 통해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 수 있다. 작은 영화관에 모인 60여 명의 청년들은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다짐하였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그 삶에 도전해보기로 결단하였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7가지 치명적인 죄(1) - 교만

다섯 번째, 그의 기도에서 나타난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은 자기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사용한 것입니다. 비교의 기준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교만의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시했습니다. 분명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보다 도덕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니까 자신만큼 선한 사람이 없고, 자신만큼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위를 올려다보아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엔트로포스, ‘인류’라는 단어의 기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간됨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아래를 봐야 자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어떤 이유든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참 건강합니다. 제 심장과 폐는 매우 튼튼하고, 검사해 보면 제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저 바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로운 세리의 기도

이제 예수님께 의롭다고 평가를 받은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13절).

그의 행동에서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은 하늘을 바라봤지만 실상은 하늘이 아니라 아래를 봤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머리는 하늘을 향해 들었지만 영혼은 하늘을 향해 들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게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 가까이 다가가시기 때문이다.”

가슴을 치는 것,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하는 것의 원문을 보면 “제가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의 행동과 삶이 아니라 세리의 자기 인식 자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살지 않으면서 세리의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리처럼 살지 않으면서 점점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인식합니다. 혹은 이른 아침에 나오면서 “지금도 잠자리에 누워있는 저 사람들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차라리 폭 자고 나오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면서 “나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온다면 차라리 폭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회개한 세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큰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데, 저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족에 빠져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불의를 저지르고, 저 사람은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지만 저는 10%만 정직하게 번 돈이고, 십일조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세리의 또 다른 바리새인적인 교만입니다. 스펔전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적인 재주가 있어서 죄의식을 가진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이유로 내세운다.”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회개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섭고, 치명적인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식을 갖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져가 끊어내지 않으면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만해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살면서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도 교만해집니다. 온통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악의 뿌리요,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교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죄악조차 모르고,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고백하고, 더러움을 토해내며,

날마다 앞드려 자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제안합니다



강종도 팀장
(생명과 환경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무더위가 시작되며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는다. 교회 카페를 찾는 성도님들도 대부분 얼음이 들어가는 음료를 주문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일회용 플

라스틱 컵의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 권장 이 시급한 상황이다.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선 교재단 한 담당자는 “여름에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시원한 음료의 선호도가 높아 머그컵이나 개인 텀블러 사용 비율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 동안 사회선교부 소속 생명과 환경팀이 진행한 환경캠페인이 무색할 지경이라 마음이 아파온다. “한 해 60만개의 컵이 온누리교회에 서만 버려지고 있다”는 카페 담당자의 말에 울

림이 있다.

직장에서는 텀블러와 머그컵만 사용하게 되었고, 환경 문제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한 여성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는 사회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환경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각자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 쓰레기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하자!”

조금 불편하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4월, 사회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터져 나왔다. 재활용업체들이 비닐과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쓰레기 대란의 시작은 처치 곤란한 쓰레기들을 우리 나라에서 해결하지 않고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 받지 않겠다는 나라들이 생기면서 터져 나온 것이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탐욕으로 인해 버려진다. 교회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가정보다 관대한 것 같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편리함에 익숙해진 습관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불편함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성도들 개인과 교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의 말이다.

“최근 일회용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건 물로 교회가 지정된 일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언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른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연간 약 190억 장의 일회용 비닐봉투와 260억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전부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하다. 재활용되는 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구의 자정 능력 범위를 벗어날 만큼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회가 앞장서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다. 이제 교회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 쓰레기를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하자!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절박한 때이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차: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서빙고 상담센터 수퍼바이저 모집

모집: 서빙고 상담센터 수퍼바이저

전화: 02-793-2997

메일: lsy1227ysl@hotmail.com

*자세한 지원 요건과 지원 서류의 문의는
전화나 메일 연락

어린이창조과학스쿨

일시: 7월 20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대상: 초등학생 40명(선착순)

신청: https://forms.gle/uWoRv4nb2g5Ud
xud7

문의: 010-6284-8479(오후 2시 이후 상담
가능)

선교지 식품건조기 기증 요청

용도: 말고농사를 하는 캄보디아 교인들의
지립

문의: 2000선교본부(02-3215-3679)

서빙고 일대일사역팀 홍보담당모집

모집: 편집 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 외
프로그램 가능자

문의: 010-6656-0969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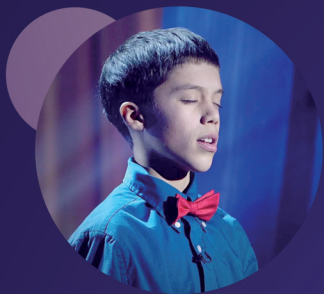
시간: 오전 10:30 분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CGNTV

For God so loved the world



NATIONAL BIBLE BEE GAMESHOW

내셔널 바이블 비 게임쇼

..whoever believes in him

John 3:16



차세대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는 성경 암송 프로젝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셔널 바이블 비 게임쇼〉

[본방송] 매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재방송]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20분

*총 10편 방송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